

신용어의 이해 및 개발

한 종구 / 전 Virginia Tech 교수

내가 포장계(이 잡지의 제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에 입문한 것은 순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73학번, 군대 3년을 마치니 79년도에 취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공채에는 무조건 원서를 냈었다.

미국 유학을 악착같이 시도한 것은 전두환 정권이 싫어서 였다고 밖에는 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내 유수의 사립 대학교를 졸업하고 포장계에 뛰어들 필자의 변이며, 민주화 데모 구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불참했던 1,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1년을 영어만 공부하여 KIDP(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입사한 것이다.

대학 3학년부턴 “영어”와의 전쟁을 시작한 셈이다. 그리고 입사 후 1년 반 동안 몰두했던 “MIL SPEC”의 번역은 결국 필자를 영어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정말 욕나오게 만드는 영어 공부를 더 할까 말까하는 상태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용어의 해석과 정의를 감히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C:W”; Windows XP 까지는 저급 컴퓨터에서 수시로 화면 위 왼쪽에 튀어나오는 기호이다, “W”는 실제로 별 의미가 없다. 문제는 “C”다. 아니 문제라기 보다는 주목해야 할

이 글의 주인공이다.

“C”에 대하여

C와 3은 C가 세번째 알파벳이라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발음은 Sea(바다, 해양), 동해, 일본해 등 말이 많은 해(Sea)와 발음이 같은 것이다,

C의 개념을 확실하게 상업화하여 돈을 번 사람은 빌 게이츠일 것이다. “MS DOS”가 그것이다. “Micro Soft의 Disk Operating System”. 스티븐 잡스가 애플컴퓨터를 처음 개발 했을 때 컴퓨터에는 하드 디스크가 없었다. Floppy disk 두개로 가동시켜야 하는 단순한 컴퓨터였다. 자연스럽게 A: 는 “Word”나 “EXCEL”과 같은 프로그램 디스켓을 넣고, B: 에는 내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 구조였었다.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추가 되면서 본격적인 퍼스날 컴퓨터 (PC))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물론 C:는 하드디스크를 가리키는 문자가 되었고, 모든 컴퓨터에서 홀로피 디스크가 이제는 없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크를 나타내는 문자는 C부터 시작한다. 왜??? 이유없다. 새로 “A:가 hard다” 라고 설명하긴 내가 봐도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HARD disk 가 없는 PC는 없으며, 그 이름이 C인 것이다, 물론 세번째 알파벳이다. 원래 “C”

가 “common”의 약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상향적으로 C가 “보통, 보편적인”을 나타내는 “Common”의 약자로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너무나 많다 다른 사례를 보자

“C”는 세번째 알파벳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어느 동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제의 이름은 관심 사항이 아니다. 다 그렇고 그런 로마 이름이다. 그러나 몇가지 의문이 든다. 여기서 세번째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왜 2월은 다른 달 보다 2~3 일 짧아야하고, 분명히 Octa는 8을 나타내는 접두어이고, Deca는 10을 나타낸다. 그러나 10월이 October, 12월이 December가 된 이유를 생각하면 세번째의 의미가 조금은 풀릴 것이다.

그건 일년의 세번째 달을 정월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년의 시작은 3월부터였으며, 이를 지키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 삼국지 이론(유비와 공명이 살기위해 나라 하나를 더 만든 것) 등 동양 철학에서도 3은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왔다.

“C”는 과연 “Common”의 약자로 과연 사용 될 수 있느니?

C-Ration 물론 Combat Ration의 줄임말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선배들이 주식겸 디저트, 담배, 껌 등을 조그만 상자에 포장한 미국제 야전 응급 음식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이 Ration에 현재는 A-, B-, D- 등 레서피에 성분 등에 따라 알파벳 접두어를 추가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B-Ration은 배

이컨이 들어 있는 요리 썸 될 것 같다.

이외에도 “C”를 세번째 알파벳보다는 “common”의 “C”로 사용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 음악 오선지의 도는 C 이며 가장 간단한 음계는 C 장조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포장. 유통에서의 “C”

포장 입문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골판지이며, 아마 A, B, C 골 등 골판지에서 골의 종류와 개발 역사, 특성 등을 배운다. DW에서 SW로 유행이 바뀌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C골이다(70% 이상).

C 골 골판지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개발 순서에 따라 A, B, C 라고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물리적 특성은 그 순서와 별로 관련이 없다.

A B C E F K 등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면서 골의 특성에 맞는 문자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명명하고 있다. 유통하는 사람들은 포장인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가 보다. 리턴어블 컨테이너 등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이름을 마음대로 막 불러도 서로 의사 소통이 된다고 하니 천재만 모여 있나 보다 이름부터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소박한 범인의 생각인가 보다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새로 개발하는 제품은 그렇다고 치자.

“Container”는? 어어 그건 용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장계(다시 한번 이 잡지의 제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로 오십시오.

C 컨테이너

후레이트 컨테이너라고 하면 된다? 쉬핑 컨테이너, 오션 컨테이너 등 아무거나 쓰면 어떠냐? 말이 안된다.

규격과 표준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

며, 일반 사람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필자는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ISO 회의에 미국대표로 몇번 참여한 적이 있다. 유럽 쪽 대표와 토의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용기”와 “Container”를 헛갈릴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 텔릭 체 또는 볼드체로하여 구분하며, Kontainer 라고 써서 구분하는 경우도 가능하여 헛갈릴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중국, 일본 만 또 답답해진다. 그놈의 영어, 이그...

후레이트 컨테이너, Returnable 컨테이너와 Foldable, Collapsible 이건 또 무어란 말인가? 그만 하고 여기서 정리를 하자.

유통하시는 분들은 돈 버는데 너무 바빠서 이런 거 정리할 시간이 없다. 단, 여기부터는 필자 본인의 고유 아이디어로 누구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요즘은 유통계와 법조계의 교류도 활발하다고 하니 미리 밝혀 두고싶다.

용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몇십년 써 온, 가장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잘 되어있는 컨테이너에 지금까지의 이론을 접목해 보자.

Tainer

“Container”를 “Tainer”로 줄이고, C 등의 접두사를 붙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C는 가장 보편적인 40-fter를 대체할 수 있다, 즉, 40fter는 C-Tainer가 된다. 항상 처음에 정하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설득도 해야하고 어렵지만 나머지는 간단하다, 20-fter는 A-Tainer가 되고 미국의 대형 컨테이너(길이 53 Ft)는 US-Tainer 뭐 이런식으로 나열하면 된다. 이제 나머지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말한다면 신경질 내실 것 같다.

- Returnable Container: RC-Tainer

- Collapsible Container: CC-Tainer

- Foldable Container: FC-Tainer

“성노예”를 “위안부”라고 우기는 일본을 참고 할 필요는 없겠다.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몇가지만 집고 넘어가자 미국교통협회인가 하는 기관에서 차량의 최대폭을 8ft(2440mm, 2400이 아니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이 컨테이너의 폭을 결정한 것이고, 결국 컨테이너의 내치수는 2300mm 이하로 되어 자국의 파레트 치수를 ISO에 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쟁을 벌여왔다. Oled TV. 핸드폰의 두께 등을 감안한다면 두께 20mm 이하의 컨테이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가능하다면 유럽형 파레트를 두개 나란히 넣는(1200 + 1200)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2006년도에 Marc Levinson은 쉬핑 컨테이너를 “The Box”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한 책을 발간한 바 있다. 영어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제정신이였다, 문제는 재빨리 나온 번역본이다. 난 역자를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그러나 6m, 12m 컨테이너 이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마 20fter, 40fter가 고유명사인지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든다. 이름이 대성(大成)이라고 큰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고 마찬가지로, 니르바나(涅槃)를 번역하지 않아 2000년 이상 칭찬 받고 있지 않는가?

TEU

동 책의 7장에는 배수가 될 수 있는 있는 경우는 모두 표준 규격에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ft, 40ft는 당연하고, 27ft, 53ft(전형적인 미국의 무법자 내수형 컨테이너)도 표준으로 들어 있다. 이런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와 각국의 대표를 개인 지도하여 만든 규격이 ISO 컨테이너 규격이다. Teu 어디서 많이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단위다. TEU(20-fter equivalent unit)는 무역량 통계에 주로 사용되는데 앞으로는 A-Tainer base 라든지 쉽게 쓰고 기억하게 할 수도 있다.

K-POP, Psy 등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이 시점에서 ISO 분과의 각 분야에서 활약을 보이고 있는 후배들에게 갈채를 보낸다.

Sustainability(지속 가능성)과 포장

이건 22세기의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 Sustainability의 원래 의미는 “현재의 지구인이 지구를 잘 사용 및 보호하여 우리의 후대가 미래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게 정의이다 그걸 쉽게 쓰면 정말 어려워진다. 인터넷에 쉽게 정의한 것을 옮긴다.

“持續 可能性”이란 쉽게 말해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것이다. 1987년의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이다”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원래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국의 의제 21(아젠다 21) 계획에서 채택된 용어다. 어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포괄적인용어라고 비판하며, 이 용어의 사용을 실제적인 개발 활동의

영역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 가능성’은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장기간 지속되는 실제 이익과 생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 맞는 정의이다. 그러나 포장인으로서 정의한 처음 것이 가슴에 와 닿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최근의 혹독한 기후변화를 보아도 내 손자가 지구를 사용한다든지, 거기에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성행위를 오래하는 것도 지속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마구 사용하는 건 言語道斷이며, 語不成說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속 가능성에는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대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속의 주어는 地球이다.

노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다. “自然” 스스로 그러함이다. 해가뜨면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고 비가오면 풀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구가 가도록 원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自然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지속이 아닌가 싶다.

“SAVE US”

Sustainability를 보면 ‘SUS’를 분리하여 “sus index”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SUS”는 “SAVE US”의 약자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지? 어떤 행위나 물건이 지구 자연에 좋은지 나쁜지 객관적인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숫자로 표시해야 하는데, 경제, 환경, 사회 및 인간이라는 4개의 기본 축을 그 index에 포함시킨다면 어느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